

第79次 OPEC 臨時總會

閉幕聲明全文

第79次 OPEC 임시총회는 86년 10월 6일부터 22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總會는 만장일치로 나이지리아의 石油資源 長官이며, 同國 수석대표인 Alhaji Rilwanu Lukman 卿을 의장으로, 에콰도르의 에너지·鑛物 長官이며, 同國 수석대표인 Javier Espinosa Teran 卿을 교체의장으로 각각 재선출하였다.

총회는 지난 총회에서 결정한 잠정감산조치(이라크 제외) 결과에 따른 油價의 회복, 그리고 지난 총회이후의 石油市況 호전을 만족스럽게 검토하였다.

총회는 石油市場의 공급과잉상태가 더욱 해소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란의 제안에 따라 잠정 감산조치를 약간의 수정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總會는 잠정감산에 대한 연장조치가 결코 회원국 사이의 영구적 生産쿼터 분배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향후 總會 토의에서 이것이 어떠한 偏見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새로운 暫定期間中の 國別 生産쿼터는 아래와 같다.

이번 會期中 총회는 OPEC 總산유량에 대한 영구적이며 공정한 國別 生産쿼터 배정을 위한 기준설정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토의를 가졌으며, 이를 위해 國別 生産쿼터설정 기준요소, 요소별 定義, 요소별 加重值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총회는 또한 이와같은 영구적 生産분배 공식의 履行體制에 대해서도 토의를 가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회의 의장이며, 나이지리아의 石油資源 장관인 Ashaji Rilwanu Lukman 卿을 의장으로 하고, 인도네시아의 鑛物에너지장관

OPEC 國別 산유쿼터

(단위 : 만B/D)

	1986年 11月	1986年 12月
알 제 리	66.9	66.9
에 과 도 르	22.1	22.1
가 봉	16.0	16.0
인 도 네 시 아	119.3	119.3
이 란	231.7	231.7
쿠 웨 이 트	92.1	99.9
리 비 아	99.9	99.9
나 이 지 리 아	130.4	130.4
카 타 르	30.0	30.0
사우디아라비아	435.3	435.3
아랍에미리트	95.0	95.0
베 네 수 엘 라	157.4	157.4
計	1,476.1	1,503.9

인 Subroto 博士, 아랍에미리트의 石油·鑛物資源 장관인 Mana Saeed Otaiba 박사로 구성된 閣僚委員會가 활동을 계속,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國別쿼터 배정기준을 다음 회의에 推薦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회는 OPEC 油價체제를 固定價格体制로 복귀시키자는 사우디 제안을 받아들여 固定價格体制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법 및 수

단에 대해 토의를 갖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固定價格体制로 복귀·시행기로 결정했다.

總會는 이 문제를 여러가지 代案 가지고 토의했으며, 또한 이 문제는 쿠웨이트의 石油長官인 Ali Khalifa Al-Sabah 卿을 의장으로 하고, 에콰도르의 에너지·鑛物 장관인 Javier Espinosa Teran 卿, 리비아의 人民企劃委員會 장관인 Fawzi A Shakshuk 卿으로 構成되어 있는 閣僚委員會가 계속 활동, 다음 총회에 勸告案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에너지 교역에 있어서 OPEC, 非OPEC 산유국, 그리고 소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교역상대국에게 심한 어려움을 주어왔던 세계石油市場을 계속 안정시키기 위해 총회는 모든 산유국들이 OPEC 회원국과 같이 눈에 두드러진 산유량 감축을 통해 油價防禦 부담을 지고, 市場세어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한, 石油市況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OPEC가 취한 일시적인 조치만으로는 市場의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OPEC는 그동안 일부 非OPEC 산유국들이 취한 긍정적인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 OPEC만으로는 더 이상 石油市場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모든 산유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총회는 따뜻한 환대와 회의를 위해 마련해준 탁월한 조치에 대해 스위스 연방정부와 제네바 州政府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

